

배움·나눔·성장지원 혁신! 공감!

프로그램워크시트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공감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원 연수를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I. 프로그램 개요

II.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02
2.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11
3. 교사 성찰하며 성장하다.	30
4.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43

자료의 특징

1. 학교의 상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영역과 주제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재를 읽고 공부하면 누구나 워크숍 또는 연수를 이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 프로그램 개요 ...

1 개요

우리 학교, 우리 학년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가꾸기 위한 교육과정인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 새로운 배움을 조직하고 운영, 성찰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바탕이 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 창의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성, 지성, 감성, 건강이 조화롭게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하게 된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서 학생이 주인이 되어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극복하고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학습자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는 것이 창의적 교육과정의 모습이다.

2 프로그램의 목표

-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단위학교에서 실천할 일을 알 수 있다.
- ▶ 학교 특성과 학습자 선택권을 반영한 교육과정 다양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 ▶ 관계를 담은 배움중심수업을 설계하고, 함께 성장하는 수업 성찰 관점표를 만들어 적용 할 수 있다.
- ▶ 평가의 참된 목적을 알고, 학생중심평가에 맞는 평가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Ⅱ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 .

주제 1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1 프로그램 설계

주 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운영시간	100분
혁신철학	<input type="checkbox"/>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input type="checkbox"/>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준비물	PPT, 색연필, 사인펜, 볼펜, 유성매직, 전지, 포스트잇, A4용지(색상지, 흰색)		
목 표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다.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실천할 일을 알 수 있다.		
진행 방법	마음열기, 모둠 토의, 전체 발표, 마무리 성찰		
흐름	활동 내용	방법	Tip & Memo
열기 (10분)	◎ 나에게 있어 교육과정이란? -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공감대 찾아보기	체크리스트 활용	- 내가 원하는 답이 없다면 여백에 답을 적도록 한다.
나누기 (80분)	◎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 내리기 (읽기자료1) :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한 읽기 자료 -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 내리기		- 중요한 문구에 표시를 하며 읽도록 한다.
	◎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찾기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찾기 - 초등 : 학급교육과정, 중등 : 교과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찾기 - 각각의 문제점들을 유목화하고 키워드로 정리하기	모둠별 실행 학습	-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유목화하고 토의한다.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방안 찾기 (읽기자료2) :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질 관리 방안 - (선택1) 일회성·전시성 행사 줄이기 - (선택2) 학급 및 교과교육과정운영의 문제점 해결방안 찾기 - (공통)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찾기	모둠별 실행 학습	- 연수대상에 따라 선택 1, 2의 활동 중 적절한 것을 선택, 활용할 수 있다.
담기 (10분)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이것만은 꼭!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실천할 일 찾기	의견나누기	-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설정한다.

2 활동의 실제

열기

- ‘나’에게 있어 교육과정이란?

▶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 나누기

-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들 중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해보고 나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나에게 있어 교육과정이란?

일거리	교사를 교사이게 하는 일	
학년 초에 치루는 통과 의식	매년 쌓아가고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	
ctrl+c, ctrl+v(복사하기, 붙여넣기)	의미있게 재구성한 것	
캐비넷	책상 위	
가면	학생들과의 삶	
실적	진정한 의미	
교장과 연구부장에 의한 작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거창한 계획	피드백과 반영	
1년짜리 공문	평가와 수업의 방향성 제시	
빈칸 채우기	논의와 협의	

- * 강사 Tip : 위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정의내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

나누기

-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 내리기
-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찾기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방안 찾기

▶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 내리기

■ (읽기자료1-1~3) : 교육과정의 정의와 성격

- 학교 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봅시다.

* 학교 교육과정이란?

* 강사 Tip : 모둠원이 전지 1장에 구역을 나누어 각자 정의내린 교육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을 나눈다. 서로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추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모둠별로 발표할 수도 있다.

▶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찾기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유목화 하여 봅시다.
- 학급(초등) 및 교과 교육과정(중등)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유목화 하여 봅시다.
- 위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 정리하여 봅시다.

학교

학급(혹은 교과)

* 강사 Tip : 아래에 제시된 단어를 참고로 포스트잇에 몇 가지를 써서 붙이며 토론해도 좋다.

사업 (역점, 특색)	문서	전시성 행사	일관성	연구부장에 의한	피이드 백
철학공유	수업의 실행	실제 삶	일회성 행사	성취기준	학교비전
교육청요구	법정시수	편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숫자 맞추기	캐비닛
평 가	예 산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방안 찾기

- (선택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실적위주의 행사와 전시성 행사를 버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읽기자료 2 :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질 관리 방안’(2016, 경기도교육청)

* ‘전시성 행사, 실적 위주의 행사’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 우리 학교의 특색 교육 활동 및 역점 교육활동은 선정과 운영은 적절한가요?

- 우리 학교의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덜어낼 교육 활동과 꼭 보장해주어야 할 교육활동을 찾아봅시다.
-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 활동은 다시 선별하고 비슷한 내용들은 다시 묶어 봅시다.

선별 기준 :

① 보장할 교육활동

② 덜어낼 교육 활동

프로그램 워크시트

- (선택2) 학년, 학급교육과정(초등) 혹은 교과교육과정(중등) 운영의 문제점 중 1~2가지를 골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봅시다.

예) 차시 진도 위주, 클릭 수업 등등

- (공통)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예1)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운영
 - 학교 비전과 교육 목표와의 관련성, 실제 교육과정에서의 구현 여부
 - 이전년도 교육과정 평가 결과의 반영

예2) 학교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전직원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운영
 - 당해 년도의 교육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및 의견 수렴
 - 평가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 방안
 -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예3)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수시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습 조직, 등등

* 강사 Tip : 위의 예시와 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둠원과 공유, 발표할 수 있다.

답 기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이것만은 꼭!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실천할 일 찾기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꼭 실천할 일, 우리 학교(학급 ·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천과제를 정하여 봅시다.

예)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겠다.
 예) 교사 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협의 및 회의에 잘 참여하겠다. 등등

3 읽기자료

1-1.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 중 추천사(함영기 글)

출처 : 정성식,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 에듀니티(2014)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를 다룬다. 여기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내용이요,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방법이다. 즉, 교육과정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이론이자 실천이다.

1918년 보비트(Franklin Bobbit)가 『교육과정(The Curriculum)』을 출간한 이래 교육과정은 비로소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 — — 중 략 — — —

오늘날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교사는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육과정을 잘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아이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할까?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정 속에 담긴 지식의 성격과 의도까지 파악하고, 아예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혼돈의 연속이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사의 역할 말이다.

미국에서 지적 전통주의가 득세하던 1969년, 슈밥(Joseph Schwab)은 “미국의 교육과정학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당시 미국 교육과정이 ‘실제적(practical)’이지 않다고 개탄하였다. 우리는 그가 왜 미국 교육과정을 실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한 ‘실제적’이란 말은 바로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과정의 구성과 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2. 교육과정의 성격

출처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별책 1〕)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1-3.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의 의미와 방향

출처 : 성열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의 의미와 방향, 경기도교육청 2014
하계 학교교육과정 매니저 직무연수 기초과정 교재,(2014)

교육과정 정상화 용어는 현재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이러한 비정상성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과정의 운영이 실행되지 않음을 뜻한다. 보다 정상적이라면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과 태도,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수업은 각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지닌 미래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교과서에만 기초한 교사 일변도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보다 학습자들의 흥미가 '유발'되게 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시키고,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성장할 권리, 만족감, 성취감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학시간에 실험이 안 되고, 사회시간에 토론이 안 되고, 국어시간에 독서에 대한 동기가 안 생기고, 문학 시간에 감상이 안 되고, 영어시간에 말이 안 나오고,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수업이 운영된다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 즉 수업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회귀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는 교육과정의 원칙을 지키면 된다. 국가교육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하나 적어도 교육과정대로만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면 상당히 정상화될 여지가 있다. 교육과정에 주입식, 암기식, 일제식 위주의 수업과 일제식 총괄평가에 의존해서만 평가하라는 지침은 없다. 또한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교사의 재량에 의해 교육과정에서 적시된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항 또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2. 사업하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기

출처 : 2016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질 관리 방안, 경기도교육청(2014)

* 장학과제 : 빛깔있는 학교 만들기<사업하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기>

* 실천방법

- ① 역점사업 → 역점교육활동, 특색사업 → 특색교육활동으로 바꾸기
 - 역점교육활동 : 전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며 그 해의 핵심과제임.
 - 특색교육활동 : 학교의 강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학교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교육활동임.
- ② 학교평가 및 학교 현황, 실태 등을 통해 역점교육활동과 특색교육활동 분석
- ③ 학교교육과정에 역점교육활동과 특색교육활동 반영

*** 참고 사항**

일부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이 행사화 또는 실적화 되어 학교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였음. 또한 소수를 위한 교육활동 등으로 파행적 운영이 되기도 하였음.

4 참고자료

1. 도서

- 강현석 외 (2015), 백워드로 시작하는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설계, 학지사
- 정성식(2014),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 에듀니티
- 양미경(2008),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과학사

2. 문서

- 경기도교육청(2015),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 성열관(2014),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의 의미와 방향”(경기도교육청, 2014 하계 학교 교육과정 매니저 직무연수 기초과정 교재)
-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4353(2016.4.20.)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4193(2016.4.15.), “2016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질 관리 방안”



주제 2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1 프로그램 설계

주 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운영시간	100분
혁신철학	<input type="checkbox"/>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input type="checkbox"/>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준비물	PPT, 동영상, 색연필, 사인펜, 볼펜, 유성매직, 전지, 스티커, 활동지, 포스트잇		
목 표	㉠ 학교 특성과 학습자 선택권을 반영한 교육과정 다양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진행 방법	마음열기, 모둠 토의, 전체 발표, 마무리 성찰		
흐름	활동 내용	방법	Tip & Memo
열기 (10분)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워밍업 - (동영상1) '인생은 마라톤이다'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연결하여 자유롭게 생각 나누기	동영상 시청 PPT 그룹별 토의	- 동영상을 보며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기
나누기 (80분)	◎ 교육시선, 현장 들여다보기 (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한가?) - 선택활동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가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 선택1. (임기자료1) 혁신학교 이해 문서 선택2. (임기자료2~7)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실천사례 공유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천했던 학교의 사례 공유	포스트잇에 작성 그룹별 토의 (또는 jigsaw 방식 그룹별 토의) 발표	- 사례 공유시 교육과정 운영 편성의 다양화와 내용의 다양화 측면 등으로 미리 관점을 제시하여 생각해 보도록 해도 좋다.
	◎ 실천 전략 세우기 -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 세우기 (Pay-off 매트릭스 활용 우선순위 분류)	그룹별 토의	- 다양한 아이디어 분류
	◎ 실천 계획 설계하기(Action Plan) - 우리 학교에서 실천하기 위한 실행 계획 세우기	실습 발표	- 실제 학교에서 실천해 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설계 (마인드맵 등) - 월드카페방식으로 공유
담기 (10분)	◎ 발전하기 - 나의 교실, 학년(학교) 교육과정 속 실천 계획 다짐하기	성찰 공유	- 실천의지 다지기

2 활동의 실제

열기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의미 탐색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생각 나누기

■ (동영상1) '인생은 마라톤이다' (2분)

- 동영상을 보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측면과 연결시켜 이야기해봅시다.

* Tip : 열기에 제시한 동영상 외에 참고동영상 중에 1~2 가지를 골라 실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가 실현되는 모습을 본 후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열기 심화활동으로 참고자료에 제시한 동영상을 보며 생각을 나누어도 좋다.

나누기

- 교육 시선, 현장 들여다보기
- 실천 전략 세우기
- 실천 계획 설계하기

▶ 교육시선, 현장 들여다보기(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한가?)

■ 선택 활동

- (읽기자료)를 읽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 선택1. (읽기자료1)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p.40-44
 - 선택2. (읽기자료2~7)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관련 자료

(선택1) 읽기자료1을 읽고 키워드를 찾아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선택2) 읽기자료 2~7을 jigsaw 방법으로 나누어 읽고 교육 과정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봅시다.

* Tip : 선택 2의 경우 jigsaw 방식이기 때문에 모둠원이 6명이면 읽기자료 2~7을 하나씩 전문가로서 맡아서 읽고 전문가집단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모집단으로 돌아와 논의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모둠원이 4명일 경우 읽기자료 2~7을 모두 하지 않고 4가지 정도의 읽기자료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좋다.

프로그램 워크시트

■ 공통활동

-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천했던 사례를 나누어 봅시다.

* 강사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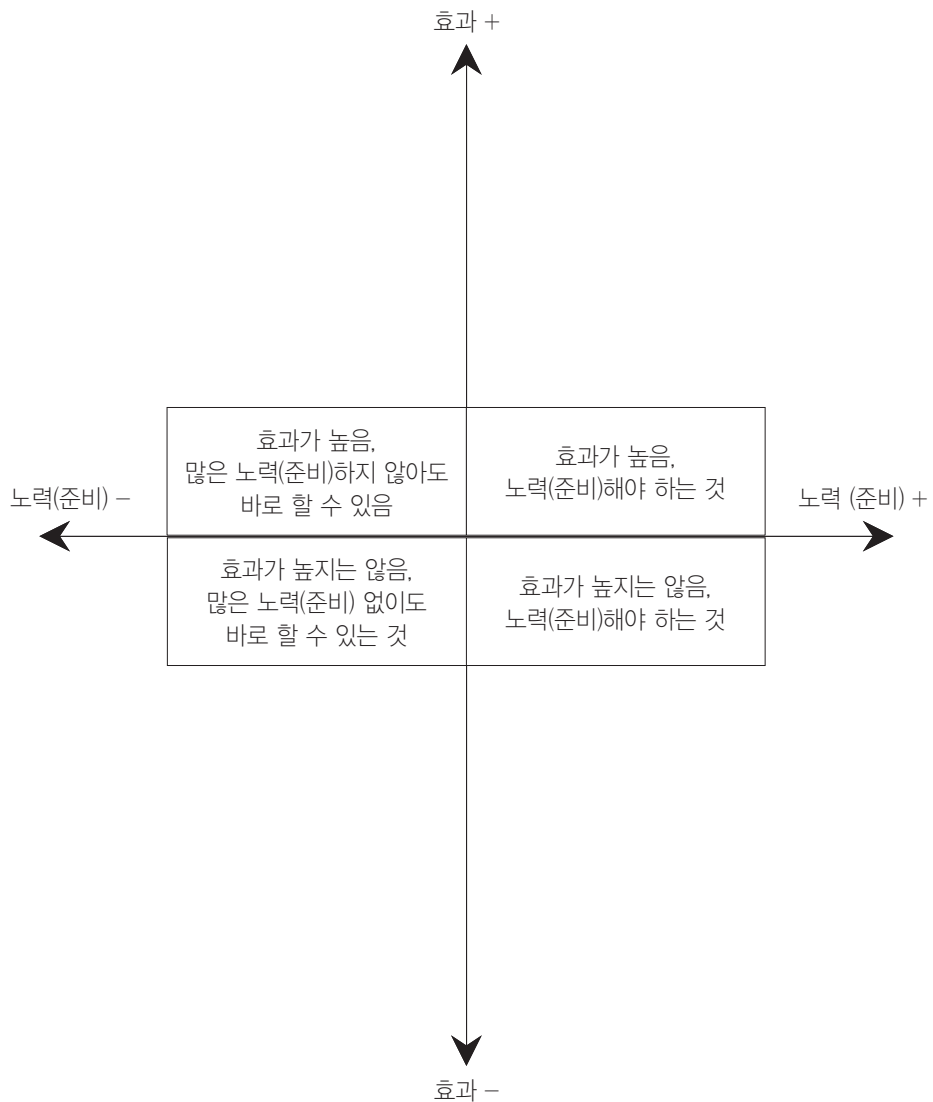
- 방법1) 포스트잇으로 사례를 모두 공유한 후 각 사례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 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운영 '편성'의 다양화 측면과 '내용'의 다양화 측면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편성의 다양화 측면과 내용의 다양화 측면으로 나누어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도 좋다.
- 방법2) 리치픽처(Rich Picture) 활동 : 모둠별로 전지 1장에 각자 구역을 나누어 학생들과 경험한 교육과정 다양화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사례 등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고 서로 설명한다. 전지 가운데에 모둠 구성원의 사례를 모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하나 만들어 쓰고 발표한다.

▶ 실천 전략 세우기

-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세워 봅시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선택권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분류하여 봅시다.

* pay-off 매트릭스 : 노력과 예상되는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 분류하기



▶ 실천 계획 설계하기(Action Plan)

- 앞에서 분류한 내용 중 한 가지 주제 또는 활동을 골라 실제 우리 학교에서 실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워 봅시다.

〈우리가 선택한 주제(또는 활동)〉

예) 학생 선택형 동아리

1. why? 왜 실천하고자 하는가?(학생에 대한 고민, 교과 특성, 교사의 교육철학 등)

2. 실행기간은?

3. 실행 흐름도 설계하기

4. 평가 방법은? (학생 평가,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



5. 주의해야 할 점, 지원받으면 좋을 점은?(지원의 주제, 지원 내용 구체적으로)

* 강사 Tip : 연수 진행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프로세스 중 3번째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든지, 프로세스 중 몇 가지만 선택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특히, 3번째 단계는 실제 학교에서 실천할 내용이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마인드맵 등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발표와 공유는 월드카페 방식으로 활용해도 좋다. 액션플랜의 다른 형태(참고자료4)를 참고해도 좋다.

담 기

• 발전하기

▶ 발전하기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천하기 위해 나의 교실 속에서, 우리 학년/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여 정리하여 봅시다.

— 나의 교실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항

— 우리 학년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항

— 우리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항

* 강사 Tip : 연수생 입장에 따라 나의 교실, 학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중 한 가지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도 좋고 각각의 측면에서 두루 생각해보도록 해도 좋다.

3. 참고자료

1. 도서

- 앤디 하그리브스, 데니스 셸리(2015). 학교교육 제4의 길(2), 21세기교육연구소
- 게롤트 베커, 아르놀프 쿤체, 에나 리젤, 하요 베버(2011). 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하라, 독일 공립학교의 개혁모델, 헬레네 랑에 학교의 교실혁명, 알마.

2. 영상

- 인생은 마라톤이다.
- 열기활동 참고동영상
 - 학생들은 왜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교육부 ‘자유학기제’
 - EBS ‘공부의 재구성 PBL’ 학생들은 왜 행복한가?(2)
 - 경기도교육청 ‘사계절방학’

3. 읽기자료

- 경기도교육청(2015).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켄 로빈슨, 루 에로니카(2015). 학교혁명. 21세기 북스
- 이찬승(2015). 학교교육혁신 칼럼. 2030년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설문기반 예측,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송순재(2011). 상상력으로 교육에 말 걸기. 아침이슬
- 길현주(2014). 수업혁신을 통해 본 ‘문화’로서의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발전연구소
- Andy Hargreaves & Dennis Shirley(2015). 학교교육 제4의 길(2), 21세기교육연구소
- 게롤트 베커, 아르놀프 쿤체, 에나 리젤, 하요 베버(2011). 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하라, 독일 공립학교의 개혁모델, 헬레네 랑에 학교의 교실혁명
- 김정원(2005).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의 성격과 그 효과. 한국교육학회
-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http://freesem.moe.go.kr/>), 자유학기제의 의미

4 입기자료

1.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논점

출처 : 김정원(2005).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의 성격과 그 효과. 한국교육학회 32(3). 126-127

교육과정의 다양화에는 시장과 수요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논점과 가치의 다원화를 강조하는 탈근대론의 논점이 있다. 이때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학교체제에서부터 교육의 내용, 방법의 재구조화에 대한 강조는 탈근대론적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영역과 논의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탈근대론에서 ‘근대성’으로 규정하여 공통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형화된 절대 진리, 가치, 비전에 대한 개혁, 명령, 구조’ 등이며, 그에 대치되는 탈근대성은 ‘객관화되고 고정된 진리의 부정, 다양한 목소리, 선택지, 과정, 문화’ 등이다(Hargreaves, 1994). 종래의 “객관성”을 부여받았던 지식이나 신념들을 ‘텍스트화’하고 특정 상황 하의 인식주체에 의해 ‘해석’되는 텍스트의 의미를 강조하는 일체의 논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논점에 의한 교육개혁은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그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게 된다.

Palmer(1995)에 따르면, 학습자가 삶의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열정은 그 대상을 ‘자신과 관계된 세계’로 ‘느낄’ 때 온다. 학교교육의 ‘다양화’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과목의 선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과든 비교과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속에서 학습자가 세상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여 년간의 교육개혁 정책 전개 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 존재하는 작은 변화의 가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던,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변화를 포착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스스로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길러지는 장으로, 혹은 ‘인성교육’의 장으로 규정하는 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그리고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비 입시 교과의 수업들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그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의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가시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2030년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 학습자의 학습선택권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출처 : Kelly, F. S., McCain, T. & Jukes, I. (2009). Teaching the digital generation; No more Cookie-cutter High Schools. California: Corwin Press,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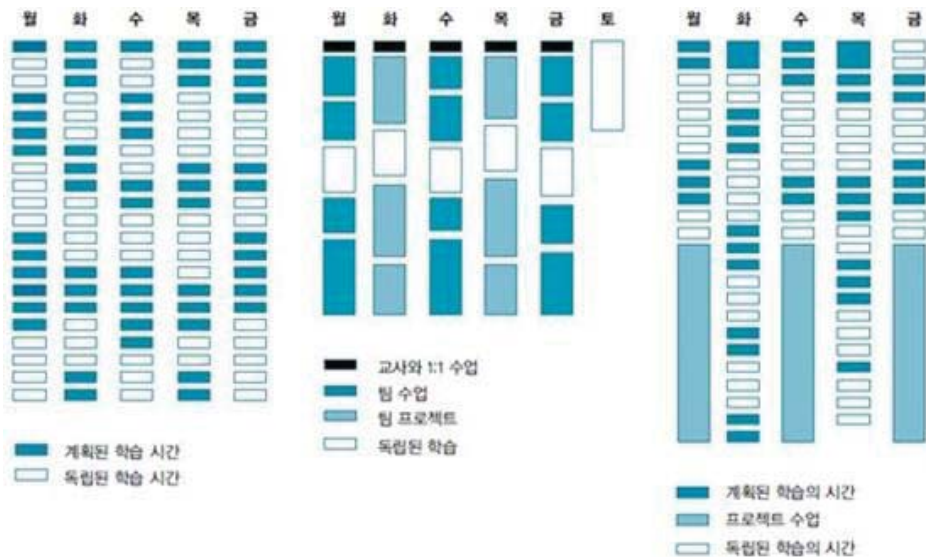
최근 핀란드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1/2이 학교교육에 대해 냉소적이란 것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핀란드는 교육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1년 단위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조건은 달고 있지만 학생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법을 46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최근 결의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나라도 매우 많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공급자적 방식으로는 전통적인 학교 제도의 유지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 있는 언행이 과거보다 심해졌다. 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 흔한 광경이 되었다. 교사들은 이런 벽찬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 한다. 이런 현상은 권력의 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학생이 불만스러운 일에 대해 당당히 교장, 교사에게 말하는 시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맘에 들지 않는 교사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찍어 고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교실이 무너진 데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다른 큰 이유가 있다. 우선, 국가가 학생들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과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 간의 불일치, 학교의 관성적 수업방식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고 몰입할 수 있는 배움방식 간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을 외면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다. 이런 불일치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배우는 내용과 배우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student agency)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수업이 학생중심(student-centered), 학생주도(student-directed)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피상적 학습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몰입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제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변경도 수반되어야 한다. 연령별로 학생을 교실에 가두고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배우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한계에 이르렀다

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학교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배우는 과목의 선택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식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수많은 학생들이 생애 매우 중요한 시기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나 개인에게 매우 큰 손실이다. 학생들이 바라는 고교의 모습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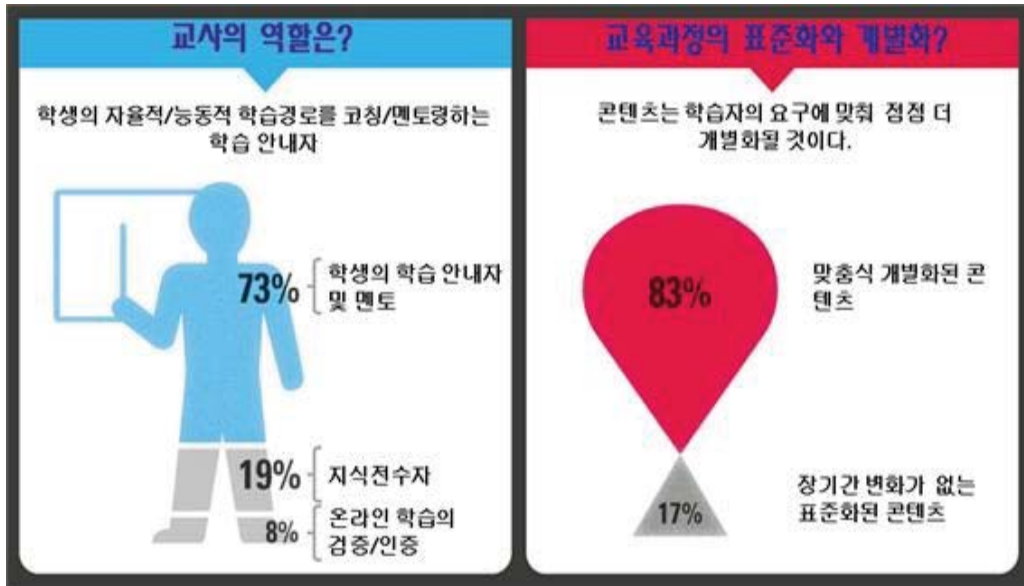
출처 : 이찬승(2016) 학교교육혁신칼럼(7) - 2030년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일까?(1) :

설문기반예측,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WISE(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 비영리 재단은 2014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645명으로부터 “School in 2030”이란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관은 9가지 영역에서 미래 학교와 미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였고 설문지의 응답을 받아 주제별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과정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에서 [표 1]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즉, 2030년이 되면 교사는 지금처럼 교단 위 현자(賢者)의 자리를 내려와 학습자 곁으로 가서 학습을 안내하고 멘토링하며 함께 배우는 학습자의 성격을 가지는 쪽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지만 그런 변화는 매우 느리다. 또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경직적으로 운

영하는 관행을 버리고 점점 더 각 지역과 학교에 적합한, 더 나아가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 역시 당연한 것이나 이는 개별화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표 1] School in 2030 –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과정의 유연성



“현재와 같이 사전에 교육과정 내용을 자세히 표준화해서 이를 현장에 내려 보내고 이를 충실히 전달하는 교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는 더 이상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수동적으로 배우는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미래 학교는 학생들은 지침만 받고, 동료들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전문가적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사회적 학습 환경(social environment)’이 될 것이다. 혁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 전통적인 교실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협동학습이 일어나고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만남의 장소(meeting rooms)’가 될 것이다.”

3. 개인화 수업(personalization)을 대량맞춤수업(customization)과 구별하라

출처 : Andy Hargreaves & Dennis Shirley(2015). 학교교육 제4의 길(2), 21세기교육연구소

예전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온라인 회사에서 추천하는 영화나 책에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또 예전에 방문한 아티스트나 장르를 보고 맞춤형 음악 목록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사업이나 광고계에서는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개인화 또는 대량 맞춤이라고 하며 서로 말을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둘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기본적인 생각은 디지털 기술의 기억 장치를 사용하여 고객과 해당 고객이 그동안 자주 구매했던 종류의 상품을 쉽고 빠르게 연결해 주자는 것이다.

교육에서 개인화와 대량 맞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학생들도 온라인과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를 수용하여 수업일정과 교육과정을 짜야한다고 주장한다. 공장학교를 디지털도구로 대체하자고 한다. 학생들이 역사개론은 싫고 대신 전쟁사나 여성사 또는 흑인 역사를 좋아한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아침 8시경엔 깊이 잠들어 있고 한밤중엔 말뚱말뚱한 학생들에게는 여명이 틀 무렵에 자명종 소리에 깨어 학교를 가게 하지 말고 저녁때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한다면? 사냥 시즌과 사냥감의 이동에 좌지우지되는 호주 원주민들의 삶, 그리고 파종과 수확기에는 청소년들의 노동 시간이 필요한 전통적인 시골 마을같이 일정과 생활양식이 다른 다양한 사회에 교육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학교는 1년 내내 그리고 24시간 열고, 교사들도 언제 어디서나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농사처럼 학교도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때가 있지만 학생마다 이런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화와 대량 맞춤 학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다양한 개성과 관심에 따라 학교의 목표를 바꾸어야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개인화 수업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재미있고 쉽다고만 해서 곧 교육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수업 시간에 컴퓨터 화면이나 유튜브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수업과는 같을 수도 없고 이를 대체할 수도 없다. 학생들의 기후 변화나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같은 주제를 맘 불편해한다고 해서 안 가르칠 수 있는가? 자고 싶을 때 못 잔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는 훈련을 안 받아도 되는가? 이는 직장 생활을 위한 연습이며, 인생의 수업도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 긴 시간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말이다.

선택(choice)이나 강제(constraint)나에 대한 대립적인 논쟁은 개인화(personalization)와 대량맞춤(customization)을 좀 더 신중히 구별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학습이든 소비자 행위와 관련하든, 주문이라는 용어는 유연함, 적응, 개인적 선호도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 등을 포괄하는 단어이고, 개인화란 개인적인 탐구와 발견같이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에 쓰여야 한다. 이런 용어들과 그 의미는 상호 배타적이진 않아서, 개인화 수업과 대량 맞춤형 수업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둘이 다루는 문제는 분명 다르다. 전인적 돌봄이라는 뜻의 라틴어 'cura personalis'라는 단어는 보스턴대학, 예수회 카톨릭 대학의 철학이기도 한데, 예수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학생을 전인격체로 교육하기를 권하면서 교육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심히 의미를 탐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지적했듯이 교육은 단지 앎과 실행을 배워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존재하는 법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랜지 중등학교는 학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글라데시 학생들의 삶의 관심과 목적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바꾸었고, 싱가포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공동체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핀란드에서는 중등학교 졸업 때까지 모든 학생이 시각 예술과 국가가 강습료를 지원하는 악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은 단지 컴퓨터로 하는 활동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 의미를 발굴하고 삶의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은 교실에서 활용할 교수학습의 자원으로 통합시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성적과 수업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일정과 온라인 선택수업을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하여 모든 학생, 특히 하루 내내 일하는 부모를 둔 빈곤 계층 학생과 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정은 다양한 사회 출신의 학생들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즉 자신의 삶과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기술을 사용하든 안 하든 영감을 주는 훌륭한 교육은 단순히 수학/과학의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고전 문학의 위대한 구성, 사상(generic ideas)의 힘, 그리고 세계 역사와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탐험과 투쟁을 가르쳐야 한다. 몰개성적이고 소외를 조장하는 공장과 같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고집하

지마라. 개인화 수업을 단순히 대량 맞춤형 수업으로 격하시키지 마라. 무엇보다도 진정한 개인화 학습이란 학생 개개인을 알파한 술책으로 달랠 수 있는 고객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격체로 바라보는 수업이다.

4. 특별한 수업에 대한 구상

출처 : 게롤트 베커, 아르놀프 쿤체, 에나 리겔, 하요 베버(2011). 만들고 행동하고 표현하라,
독일 공립학교의 개혁모델, 헬레네 랑에 학교의 교실혁명

학교는 지식을 얻는 곳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그 의미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연습과 경험, 노력과 실수, 배움을 통해 지식, 깨달음,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립하고 성숙하며, 직업학교든 대학이든 진학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이들의 감정과 신념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도 이해하며 주장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무엇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가 잘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이 그런 경험을 하도록 특별한 학습이 여름 방학 직전의 프로젝트 주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물론 가끔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외우는 공부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이 더 유용하고 필요할 때가 많다. 학교 밖 현실을 탐구하고, 물체나 모형을 만들고, 과학 실험을 하고, 어쩌면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획하고, 도움을 주고, 보여주고, 설득하고, 사회 문제에 간섭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만족해할 수업이 무엇일지 의논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학습을 요구하는 수업이다. 수업의 목적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수업을 통해 사물과 생각, 타인, 미적 현상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 분야의 좁은 경계가 사라지고 여러 분야가 핵심 문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부를 재미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농담만 하는 사람도 아니다. 재미는 기쁨이나 만족과 조금 다르다. 무엇을 배우는 일, 특히 무엇을 이해하는 일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세상과 타인, 현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을 표현한 경험에서 얻은 결론(자기 것으로 만들고 외워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으로 지식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학교는 이제 학교 밖에서 저절로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완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는' 경험과 같은 것 말이다.

행동으로 배운다고 말할 때의 행동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된다. 그것은 탐구나 의사소통, 사회봉사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인 행동 범위 내의 활동인 것이다. 행동에는 대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가 따른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양로원을 찾아가 노인에게 책을 읽어주고 피난민 어린이에게 공부를 가르친다. 이때도 학생들은 인식하고 표현하고 교환하고 전달하는 경험과 관찰을 한다. 탐구란 관찰하고 조사하고 질문하는 일이다. 숲이나 강을 관찰하고, 교통 문제를 조사하고, 직업이나 어느 지역의 역사를 연구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을 알아가고, 자신의 추측이 실제 맞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일이다.

5. 자유학기제의 의미

출처 : 교육부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http://freesem.moe.go.kr/>

1. 자유학기제 개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자유학기제 목적

-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생 · 학부모 ·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3. 자유학기제 비전

수업 개선과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적성 ·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초 · 중 · 고등학교 전반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6. 액션플랜 형태 참고자료

실천 과제				
실천 철학, 방향 (Why)				
실행기간 (When)				
실행방법 (How)		단계별 실천활동	준비해야 할 것	역할자
평가 방법	학생 활동	*학생 활동에 대한 피드백 방법		
	실천 활동 자체	*계획한 활동이 잘 진행되었는지 준비과정부터 실천까지 평가하여 피드백하기		

주제 3 - 교사, 성찰하며 성장하다.



1 프로그램 설계

주 제	성찰을 통해 관계를 담은 배움중심수업 만들기	운영시간	100분
혁신철학	<input type="checkbox"/>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input type="checkbox"/>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준비물	PPT, 동영상, 색연필, 사인펜, 볼펜, 유성매직, 전지, 포스트잇, A4용지(색상지, 흰색)		
목 표	㉠ 관계를 담은 배움중심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 함께 성장하는 수업 성찰 관점표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진행 방법	마음열기 ▶ 모둠 토의 ▶ 전체 발표 ▶ 마무리 성찰		
흐름	활동 내용	방법	강사 Tip & Memo
열기 (10분)	◎ 수업을 통해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 (동영상1) 학교의 기적 -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감상하기 • 동영상을 보며 수업에 대한 생각 나누기 • 내 수업의 정체성 설정하기	성찰 토의를 통한 수업 정체성 설정하기	포스트잇, 전지(또는 4절지), 유성매직, 색연필, 사인펜, 스카치 테이프
나누기 (80분)	◎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 생각하기 - 교사중심의 수업과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 알아보기 ◎ 수업에 관계를 담기 - 관계중심 수업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수업에서 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 수업 속 관계 설정의 대상 • 수업 속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 수업에 관계를 담는 방법 등 - 관계를 담은 역할극 만들기	관계중심수업 구안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 만들기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 생각하기 • 수업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민할지 생각하기 • 교사의 성장을 위한 성찰적 관점 생각하기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표 만들기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으로 수업보기 - (동영상2) 학교의 기적-마음을 움직이는 체육수업 보기 - 우리가 만든 수업성찰 관점표로 수업보고 이야기하기	모둠별 실행학습	
담기 (10분)	◎ 나만의 배움중심수업 관점 찾기 - 나를 성장시킬 배움중심수업 관점 정리하기	개인별 실행학습	

2 활동의 실제

열기

- ‘나’는 수업을 하며 무엇을 꿈꾸는가?

▶ 내 수업의 정체성 찾기

- (동영상1) ‘학교의 기적’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 동영상을 본 후, 모둠별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나는 왜 가르치는가?

- 아이들이 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 내 수업은 경청, 수용, 격려, 인정으로 창의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 위 토의와 (읽기 자료1)을 참고하여 내가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내 수업의 정체성을 세워 봅시다.

프로그램 워크시트

나누기1

-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 생각해보기
- 수업에 관계를 담기

▶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 생각해보기

- 교사 중심의 수업,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과 관련된 낱말을 찾아보고 생각을 나눠봅시다.

교수, 학습, 진도, 속도, 발문, 질문, 정답, 해답, 성적, 성장, 지식 습득 활용 능력, 공감능력, 호기심, 시민의식, 지시적 수업, 비지적 수업, 전달식 수업, 관계적 수업, 허용, 선별, 경쟁, 경청, 인정, 보상, 성취감, 우월감

교사 중심의 수업	학생이 중심이 된 수업

▶ 수업에 관계 담기

■ (읽기자료2) 읽기

- 관계 중심 수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수업에서 왜 관계를 고민해야 하는가?
- 수업 속 관계는 누구와 설정되어야 하는가?
- 수업 속의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관계를 담을 것인가?

● 제시된 수업 장면을 관계를 담은 수업 장면으로 3분 역할극 만들기

- 어떻게 관계를 담은 것인가?
- 관계를 담은 3분 역할극 만들기(교사-학생, 학생-학생)

[사례 1] 중학교 2학년 국어 : 정리하며 듣고 조리 있게 말하기-창의성을 키우려면

1. 도입 : ‘창의성을 키우려면’이라는 강연에 대해 간단히 소개
2. 전개
 - 1단계) 메모하며 듣기
 - 메모할 내용이 분류된 활동지를 나눠주고 모둠별로 의논하여 각자 메모할 내용을 선택
 - 강연 내용을 들려주면서 자신이 메모할 내용을 메모하며 듣도록 함.
 - 2단계) 강연 들으며 미처 메모하지 못한 내용을 교과서를 읽으며 찾아 메모하기
 - 3단계) 각자의 메모를 모아 핵심내용 정리하기(형식은 모둠별 자유롭게 구성함)
 - 4단계) 모둠별로 모아진 메모 내용을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며 친구들에게 강연하기
 - 5단계) 강연 들으며 궁금한 점은 포스트잇에 기록한 뒤 발표 모둠원에게 전달하기
 - 6단계) 발표하지 않은 모둠원들이 질문지를 선택하여 답변하기
3. 마무리: 강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발표하기

[사례 2] 중학교 1학년 도덕 :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삶의 균형점 찾기

1. 도입 :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며 절제의 힘의 중요성을 말함.
2. 전개
 - 1단계) 모둠원 개인별로 유혹과 절제의 상황을 생각하며 적어보고, 모둠원과 생각 공유
 - 2단계) 모둠별로 소비, 시간, 감정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유혹 상황과 절제 상황 선정하기
 - 3단계) 모둠별로 선정된 상황을 정지 화면처럼 동작으로 표현할 방법 토의하기
 - 4단계) 모둠별로 정지 사진으로 상황을 표현하고, 나머지 모둠은 상황을 맞춤
 - 5단계) 가장 표현을 잘한 모둠과 가장 많이 맞힌 모둠을 찾고, 그 이유 나누기
3. 마무리
 - 6단계) 건강한 행복을 위해 모둠별로 실천 약속 정하고 발표하기

나누기 2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표 만들기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으로 수업보기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표 만들기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

- 교사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수업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교사의 성장을 위한 성찰적 관점은 무엇인가?
- 배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생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 (참고 자료)의 한계점을 넘어 교사 성장을 이끄는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표를 만들어 봅시다.

교사 성장을 이끄는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표

프로그램 워크시트

▶ 배움중심수업 성찰 관점으로 수업보기

❏ (동영상2) 학교의 기적 ‘마음을 움직이는 체육 수업’

-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만든 수업 성찰 관점표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답 기

- 나만의 배움중심수업 관점 정리

▶ 나만의 배움중심수업 관점 정리하기

❏ (읽기자료3) 교실 속 비주얼씽킹(김해동, 맘에 드림)

- 마인드맵이나 비주얼씽킹을 활용하여 나만의 배움중심수업 관점을 정리해봅시다.

3 참고자료

1. 영상

- 학교의 기적 3부-아이들이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 EBS 다큐프라임
- 학교의 기적 3부-마음을 움직이는 체육시간, EBS 다큐프라임

2. 읽기자료

- 김태현(2012),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좋은 교사
- 김현수(2014), '교사 상처, 에듀니티
- 김해동(2015), '비주얼 씽킹', 맘에 드림



4 읽기자료

1. 내 수업의 정체성 찾기

출처 : 김태현,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좋은 교사(2012)

수업을 성찰하기 위해 수업을 살펴볼 때,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교사의 행위, 교사의 발문법, 교사의 판서 능력, 교사의 언변술 등을 주로 보려고 한다.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을 보려고 해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중략>

좋은 수업은 단순히 교사의 수업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업을 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철학이 중요하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여러 행위들, 예를 들어 교사가 말하는 내용, 제시하는 수업 활동,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 등이 하나의 목적으로 향한다. 반면 철학이 없는 수업은, 교사가 많은 행위를 해도 각 행위들이 목적 없이 배열된 채 단절되어 있다. 좋은 수업에는 교사의 행위를 일관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수업 철학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업을 처음 볼 때 '수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즉 수업의 정체성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중략>

수업은 외부로부터 변화되지 않는다.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으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된다. '교사는 누구인가', '학생들은 누구인가', '교과 지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하나의 수업 속에서 구현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보면서 내 수업의 정체를 찾아야 한다. 내 수업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2. 수업에 관계 담기

출처 : 김현수, '교사 상처', 에듀니티(2014)

대개 학기 초에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상처 주고받기가 자주 일어난다. 또 상처를 주고받는 동안 서로 힘들어하는 지점을 알아 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복구 노력에 성공하면 학년이 끝날 즈음에는 좋은 관계에 도달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상처를 주는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면 상처투성이가 된 채 관계를 끝내게 된다. <중략>

교사들이 흔히 하는 푸념이 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다'는 식의 한탄인데, 따져 보면 그 말 속에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떻기를 바라는 마음, 즉 기대하는 바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문해 보았을까 <중략>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이유로 교사가 상처받는 것은 불필요한 소진이다. 교사가 기대하는 아이의 실체를 잘 이해하면 화를 적게 내고, 자신을 덜 추궁하며, 실제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중략> 요즘 아이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의리와 우정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대하는 교사만이 아이들과 상처 주고받기를 끝낼 수 있다.



3. 비주얼씽킹

출처 : 김해동, '교실 속 비주얼씽킹', 맘에 드림(2015)

‘나누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는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 등이 있다. 비주얼씽킹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혼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식, 이야기, 감정을 나누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나눌 때에 의미가 있기에 ‘생각 나눔’이라고 정의하였다.

비주얼씽킹이란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등을 통해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얼씽킹이라고 해서 너무 비주얼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한다. 비주얼씽킹이라는 말처럼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표현하는 것은 비주얼씽킹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비주얼씽킹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더욱 좋겠다.



4 참고자료

1. 수업 참관록 (2011)

영역	요 소	분 석 관 점	평 점				
			5	4	3	2	1
I. 수업설계	1. 목표의 진술	수업 목표가 학생들의 배움 중심으로 설정 되었는가?					
	2. 교재 내용의 구조화	교재 내용을 학습자 배움 중심으로 구조화 하였는가?					
	3. 지도 계획	모든 학생의 배움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업이 설계 되었는가?					
	4. 수업 방법	학습 목표와 단위 내용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선택하였는가?					
	5. 평가 계획	학습자 배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인가?					
	6. 지원 계획	수업 내용에 알맞은 학습 자료나 수업 매체를 계획하였는가?					
II. 교수행위	1. 교사 발언	학습자 배움을 촉진하는 발문인가?					
	2. 교수 기술	동기유발, 학습 장애활동의 적절한 지도, 동작, 교사의 위치 등이 수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3. 협력지도	지적 차이를 고려하여 모둠별 혹은 2인 협력 학습을 유도하는가?					
	4. 판서 활동	판서활동이 목표수준과 관련을 갖고 시기, 양, 위치, 내용, 기술 등이 적절한가?					
	5. 자료의 활용	학습자료 및 수업 매체의 투입과 활용이 적절한가?					
	6. 평가 활동	평가 방법이 학습자 배움 정도를 확인하기에 적절한가?					
III. 학습자 활동	1.자기목표설정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한 학습목표를 정하고 참여하는가?					
	2. 배움의 자세	학습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이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가?					
	3. 배움의 협력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배우고 있는가?					
	4. 배움의 공유	학습자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있는가?					
	5. 배움의 정리	학습자가 배움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고 있는가?					
	6. 자기 평가	학습 목표 달성도에 대해 자기 평가 활동을 하는가?					
IV. 수업분위기	1. 학습 분위기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 되는가?					
	2. 환경적 요건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췄는가?					
종합의견			합계				

2. 배움 중심 수업 관점표 (2012)

영역	배움 중심 수업 방향	수업 관점
배움 중심 수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 중심 수업은 수업기법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 재구성, 교육방법, 평가혁신 등 총체적인 교육활동 혁신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계된 수업인가? ○ 지식에 대한 학습보다는 지식 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도록 설계된 수업인가? ○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 교육내용 재구성에 따라 설계된 수업인가? ○ 교사의 교수 행위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의 과정이 중시되도록 설계된 수업인가? ○ 교육의 과정에서 정의적 능력과 창의지성역량이 증진되도록 설계된 수업인가? ○ 학생의 특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된 수업인가?
배움 중심 수업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 중심 수업의 본질은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및 축적을 넘어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익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가에 중점을 둔 수업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는가? ○ 학생이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해결과정을 모색하는가? ○ 배움의 내용이 삶과 연관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 협력적인 배움(자기생각 만들기)과 나눔(서로 다른 생각 나누기)으로 지식의 창조과정을 경험하는가? ○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가? (신뢰, 수용, 격려, 개발, 도전장려, 참여, 존중, 끌어내기) ○ 비판적 사고 활동(독서, 토론, 실험, 관찰, 글쓰기, 체험 등)을 거쳐 자기생각을 만들어 가는 수업인가? ○ 학생 개개인의 정의적 능력(도전의식, 성취동기, 호기심, 자존감 높이기, 협동과 책임 등)을 고려하는가?
배움 중심 수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 중심 수업은 자기생각 만들기를 위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지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정의적 능력, 창의지성 역량이 신장되었는가? ○ 배움의 결과를 자기언어와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가? ○ 배움의 결과 확인이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 평가가 격려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가? ○ 평가가 수업의 내용 및 과정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가?

주제 4 - 교육과정의 책무성



1 프로그램 설계

주 제	평가의 변화를 말하다.	운영시간	100분
혁신철학	<input type="checkbox"/>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input type="checkbox"/>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의적 교육과정운영		
준비물	ppt, 동영상, 배경음악, 색연필, 싸인펜, 볼펜, 유성매직, 활동지, 평가지		
목 표	평가의 참된 목적을 알고, 학생중심평가에 맞는 평가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진행 방법	강의 ▸ 모둠 토의(4인 1모둠) ▸ 전체 발표 ▸ 마무리 강의		
흐름	활동 내용	방법	강사 Tip & Memo
열기 (10분)	◎ 동영상 보며 시험의 대한 정의 생각하기 - (동영상1) 시험 동영상 시청하기 - 평가에 대한 생각 나누기 - 평가에 대한 정의 내리기	동영상	- 세계인의 시험에 대한 생각을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는 시험은 무엇인지 생각 나누기
나누기 (80분)	◎ 학생성장중심 평가 방향 이해하기 - (동영상2) 시험의 목적 시청하기 - (읽기자료1~3) 읽기 - 학생성장중심평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평가방법, 평가문항, 수업과 연계, 피드백 관점)	동영상 토의	- 동영상을 통해 시험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에 대해 생각 만들기 - 학생성장중심평가의 방안 나누기
	◎ 우리학교 학생평가 성찰하기 - (동영상3) 교육과정-수업-평가일체화 - 우리 학교의 학생평가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기 - 학생성장중심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평가 바라보기 (잘하고 있는점, 변화가 필요한 점, 노력해야할 점)	동영상 토의	- (동영상3)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 내용 안내 - 우리 학교의 학생평가를 학생성장중심 평가의 관점에 따라 잘하고 있는 점, 변화가 필요한 점,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
담기 (10분)	◎ 학생성장중심평가를 위해 할 일 알아보기 - 학생성장중심평가를 위해 내가 할 일해 이야기하기	동영상 토의	

2 활동의 실제

열기

- 내가 생각하는 시험(평가)은?

▶ 평가에 대한 생각 나누기

- (동영상1) '시험' 동영상 시청하기

- 평가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시다.

- 평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평가(시험)는 ()다.
왜냐하면

나누기1

- 학생성장중심 평가 방향 이해하기

▶ 학생성장중심 평가 방향 이해하기

- ▣ (동영상2) 시험의 목적 시청
- ▣ (읽기자료1,2,3) 참고
-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 * 초등: 평가제도, 평가문항, 수업과 연계, 피드백 방법 등
 - * 중등: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학생성장을 돕는 평가방안

좋은 평가 문항은?	평가 결과 피드백 방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방안은?	평가제도?

나누기 2

- 우리 학교 학생 평가 성찰하기

▶ (동영상3) 시청하기

- (동영상3)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시청

- 동영상을 보며 우리 학교의 학생평가는 어떠한지 생각해봅시다.

- 학생성장중심평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학교 평가 바라보기

잘하고 있는 점	변화가 필요한 점	노력해야 할 점

담 기

- 학생성장중심평가를 위한 할 일 알아보기

▶ 학생성장중심평가를 위해 할 일 알아보기

- 학생성장중심평가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 학교가 할 일

– 내가 할 일

3 참고자료

1. 영상

- (동영상1) 시험1부-시험, EBS 다큐프라임
- (동영상2) 시험의 목적-프랑스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 EBS 지식채널e
- (동영상3)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2. 읽기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어떻게 할까요?
- 이찬승(2015). 2030년 바람직한 미래학교 구상(4)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서울교육정책자료(2011). 언론이 바라본 평가

4 읽기자료

1.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생평가 어떻게 할까요?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 중심 교육’으로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평가도 더 이상 줄 세우기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 및 수업의 한 형태로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수행평가 내실화, 형성평가 활용, 수업과 연계한 평가,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 피드백 강화라는 다섯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 수행평가 내실화

- 1) 수행평가 : 준비된 답지 중에서 선택하는 응답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독자적으로 답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서답형), 과제 및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구술 · 토론 · 발표하는 방식의 평가를 포괄합니다. 즉 학생이 배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직접 나타내 보이는 방식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 2)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습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나. 형성평가 활용

- 1) 형성평가란 교수 · 학습이 진행되는 도중에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을 증진하는 기능과 학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형성적’ 기능이 강조된 평가를 말합니다.
- 2) 형성평가의 주요 목적은 서열화나 경쟁 유도가 아니라 학생의 추후 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며, 나아가 교수 · 학습 전반을 개선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3) 형성평가에 비해 총괄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을 종료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총괄평가에 의한 평가결과는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성적을 부여하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정보를 주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 4) 형성평가 결과는 성적 산출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 없이 강약점과 오류 등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아 전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의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업과 연계한 평가

- 1) 수업과 연계한 평가란 교수·학습과 평가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도록 수업 중에 형성평가 활동, 수행평가 활동을 접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각 교과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면서 중간에 학생이 배운 성취기준을 제대로 익혔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학습내용에 대한 복습의 기회가 되므로 평가가 학습의 연장선이 됩니다.
- 2)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연습문제를 풀게 하여 이해와 습득을 유도하기도 하고, 실험, 실습, 토론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과 연계하여 보고서 쓰기, 발표 등의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예: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한 쓰기, 발표하기, 문제해결 등의 수행평가).

라.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

- 1)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암기능력이 아닌 ‘지식활용 능력’이기 때문에 이론적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사회적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이를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상황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중요시하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을 교과 내용과 연계한 문항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3)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능력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12쪽 그림 참조)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항을 활용합니다.
- 4)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제시된 핵심역량을 나타냅니다. 각 학교급에서 익혀야 할 핵심역량을 참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목표에서 명시된 핵심역량	중학교 교육목표에 명시된 핵심역량	고등학교 교육목표에 명시된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협동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능력 • 기초능력 • 문제해결능력 • 창의적 사고력 • 의사소통능력 • 민주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 진로개척능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 비판적 사고력 • 창의적 사고력 • 사회적 책임의식

- 5)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는 하나의 학문 지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스레 여러 교과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 피드백 강화

- 1) 피드백이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생 측면에서는 인지와 행동의 교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성적표 포함)를 말하며, 교사 측면에서는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2) 효과적인 피드백은 학생의 현재 위치(학습상의 강약점)를 정확히 짚어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습을 촉진하고 강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3)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와 동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면 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내면적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2. 미래학교의 평가

출처 : 이찬승(2015). 2030년 바람직한 미래학교 구상(4)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 연구팀의 연구원들은 학습의 측정, 자격부여, 평가 그리고 학습의 질 보장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그 사람이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역할을 갖추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인의 나이는 18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필요한 자질을 실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잘 살피고 고려해야 한다.

- 학습공원은 ‘발달과 성장(development and growth)’에 관한 것이다.
- 학습공원은 ‘최선의 자기되기(becoming the best version of yourself)’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평가는 이런 목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학교인 학습공원에서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발달과 성장’을 지향하고 중시하게 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측면이 큰 새로운 학습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학습한 결과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도달한 역량 수준에 따라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각 개인마다 자신의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습득한 역량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보고서, 피드백 노트는 물론 필요한 자격증을 통해 해당 역량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취득한 학점이 모이면 이것이 특정 영역의 자격이나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식적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실증적이기보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규범적인(normative)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최소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실제의 역량 간의 갭(gap)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기반 평가나 비공식적 평가는 공식적 교육과정의 평가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표준화 시험이 아니라 피드백(feedback)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에서는 지식을 더 많이 아는가보다는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팀 과제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과 역량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특정 영역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 수업 촉진자(=교사) 등은 학생이 역량을 언제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관찰할 것이다. 한편 학생이 어떤 역량을 어떤 수준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 수업 촉진자들이 인증해 줄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에 따라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적 코치와 멘토들이 이들을 도와줄 것이다.

미래학교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는 평가라고 생각된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과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래학교도 이 평가 결과를 대입시와 연결 짓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당장 “대학이 이를 신뢰할 것인가?”란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 차세대 평가가 아무리 훌륭하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미래학교는 학생의 프로젝트 수업을 직접 관찰한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 수업 촉진자들’의 관찰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평가 결과를 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프로젝트 학습의 평가는 객관식 지필고사만큼 객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채점자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한국은 채점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 2030년 ‘표준화 시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신문기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입시중심 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 시험의 폐지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한국인데도 말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행평가의 강화는 바른 접근이다. 여건이 불비해서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가기준(rubric)을 수준별로 잘 설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단, 교과 단원을 수준별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을 갖추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언론이 바라본 학생평가

서울교육정책자료 2011.01.12

▶ 서울시 교육청 교사별 평가의 서막을 열다

■ 초등학교 평가방식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 초등학교 평가는 창의인성교육이라는 정책방향에 걸맞는 수업·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및 이를 위한 교사의 수업·평가 자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 학교·학년별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교사별 자율성에 근거하여 수시단원평가·수행평가 형태로 전환할 것을 학교 현장에 적극 권장하는 것임
- 이처럼 전환하는 경우 교사별 노하우와 담당학급의 상황, 과목별·단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시기·주기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음
- 시험(지필평가)을 없애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됨
- 교사의 자율성에 근거한 다양한 평가방식은 선진국들의 초·중등학교에서 보편화된 것임
- 이를 위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조만간 실시 예정이며, 수업·평가방식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겠음
- 교사간 상호참조와 지원, 부분적인 문항공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통해 교사간 상호장학 활성화 기대
- 수시단원평가는 중간/기말 정기평가에 비하여 학습부진이 누적되기 전에 발견하여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학교 진도에 따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등,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간/기말고사에 비해 바람직한 평가 방식임

▶ 도내 초교 일제평가식 시험 단계별 폐지… 교사별 평가 시행

2016년 01월 13일 21:03:18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학생이 같은 날 일제히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학년도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행복한 배움의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적극 지원한다.

교과 진도 수업, 수업과 무관한 평가, 학습 성과와 무관한 학생부 기록을 탈피해 수업시간 안에 이뤄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배움 중심 수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해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평가하게 하고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일제평가식 정기고사를 폐지한다.

또 내년엔 3·4학년, 2018년엔 5·6학년까지 중간·기말시험을 차례로 폐지하고 올해 우선 같은 문항으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을 축소한다.

이밖에 외부기관 시상, 반 배치고사 등을 위한 학년 단위 일제고사도 없어지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평가 방법 개선보다 수업 개선에 더 역점을 뒀 지난해와 연계해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맞은 관찰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험 관리 때 휴대전화 소지와 필기도구 위반 등 부주의나 단순 지시 불이행 행위를 0점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하게 했다.

종전의 엄격한 잣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기준을 준용한 것이어서 수업을 통한 교사와의 소통 결과를 평가하는 것과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은 일제평가식 정기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를 전면 시행하며, 중등은 입시를 위한 평가가 아닌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 성장 중심 평가의 골자”라고 말했다.

▶ 전북 초등교, 올해부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

〈동아일보 2016년 1월 7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일제평가 방식의 중간, 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현행 학생평가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수업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일제평가 대신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성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중·고교의 평가제도는 입시와 연계된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2018년도 고입제도의 완전내신제 전환에 맞춰 중학교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토론 및 협력학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유형별 원인 진단과 보충까지 통합해 지원하는 ‘맞춤형 책임교육’을 확대하고 2학기에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수업 혁신과 학교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올해의 정책 의제로 설정했다”며 “무한 경쟁만 강요하는 교육에는 절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 2016 경기도교육청 학생성장중심평가 계획

가. 교사의 평가권 강화

- 1) 방향 : 일제식 정기고사의 형태에서 벗어나 가르친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평가하는 교사별평가 내실화를 추구하며, 단계별 일제식 정기고사 폐지를 통한 교사별 평가 강화

2) 내용

가) 단계별 일제식 정기고사 폐지

- 2016년 초등 1, 2학년 폐지
- 초등 3~6학년 일제식 정기고사 축소·폐지
- ※ 2017년 초등 3~4학년, 2018년 초등 5~6학년 일제식 정기고사 폐지 예정
- 졸업식 및 외부기관 표창 등 외부상 시상, 반 배치고사 등을 위한 일제고사 폐지

나) 교사별, 상시평가 내실화

- 교사별 평가는 전 학년, 전 학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사별 평가 적용 범위와 수준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동학년에서 공동으로 평가 문항만 출제하거나 과목 분배식 평가 문항 출제 금지
- 학생평가계획에 따라 상시평가 실시

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 평가 장학 자료 보급 및 연수, 컨설팅을 통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동학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나. 학생성장중심평가 체제 구축

1) 방향 : 학생 성장 지원 평가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평가 체제 구축

2) 내용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계획 수립, 평가 문항 개발, 평가 결과 처리 등 학년협의회 협의 반영

나) 학교교육과정 철학을 반영한 학교교육계획에서의 학생평가계획 대강화

다) 학년(학급)교육과정 편성단계부터 교육과정재구성, 배움중심수업과 일체화된 학년(학급) 학생 평가 계획 수립

라) 학년(학급) 학생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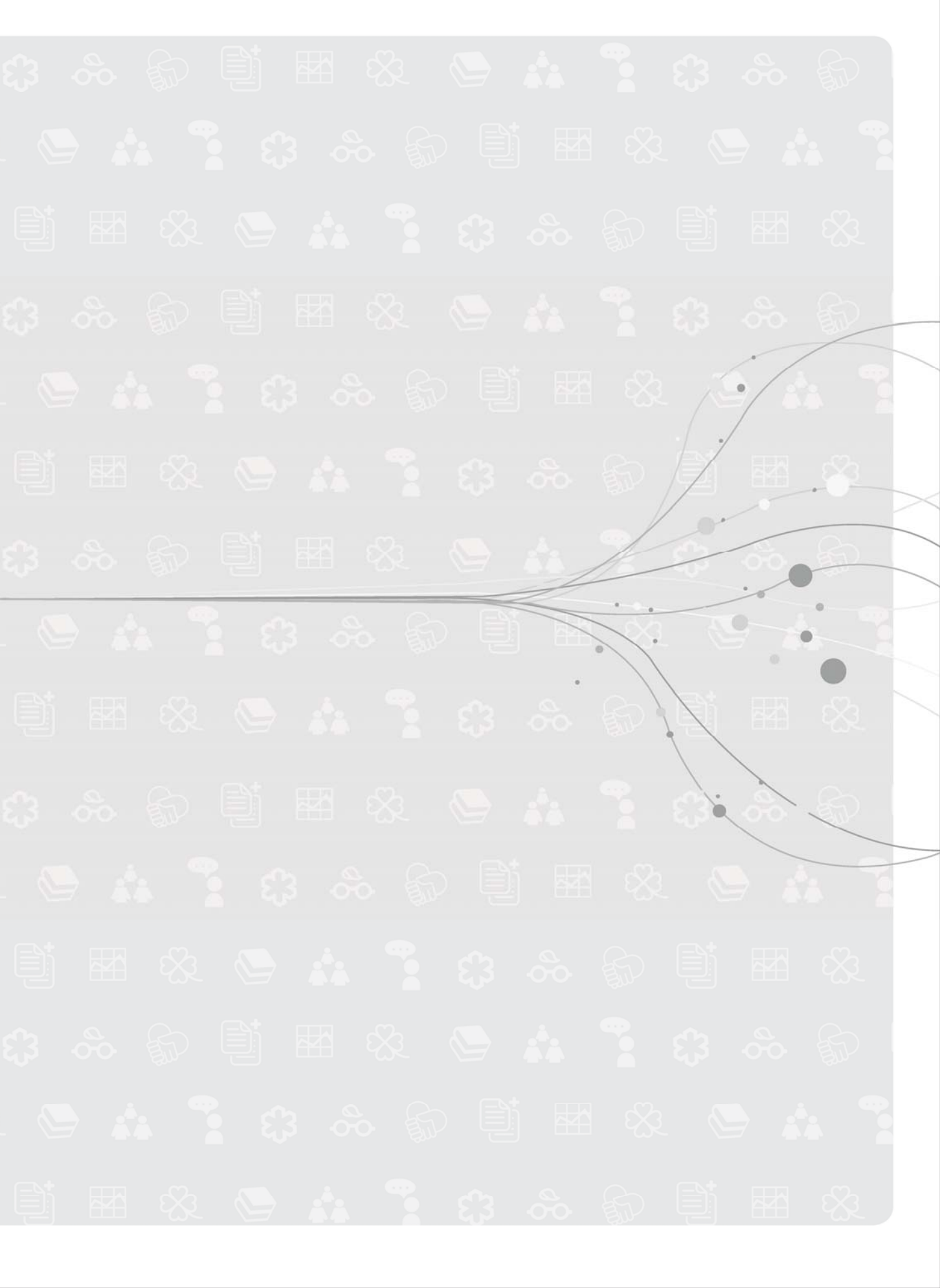
-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지 않으며,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 마) 평가 결과 피드백 및 학부모 평가 통지
 - 평가계획 사전 공개(학생평가계획), 지필평가 평가지 공개, 평가 결과 통지
- 바) 성장중심평가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 공감, 이해 강화

다. 학생성장중심의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내실화

- 1) 방향 : 성취기준(핵심성취기준) 분석을 바탕으로 꼭 평가해야 할 요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한 성장 지원
- 2) 내용
 - 가) 논술형 평가 확대
 - 지필평가에서 자기생각 만들기를 위한 논술형 평가 확대와 문항의 질 관리 철저
 - 수행평가에서 논술형 평가 적용 가능
 - 나) 평가 방법의 다양화
 -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다양한 평가 방법 실천
 - 교사에 의한 평가, 학생이 참여하는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실천
 -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적 능력 평가는 수행평가 영역에서 시행
 -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실천
 - 다) 평가 횟수의 적정화
 - 학생평가계획에 의한 평가 실천
 - 경직된 평가관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평가를 지양
 - 라)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피드백 강화

마 무 리

연수과정 마무리 및 지역(학교)단위 연수 계획 수립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연수과정 마무리 및 지역(학교)단위 연수 계획 수립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돌아보기

- 연수과정 마무리

▶ 연수 과정 돌아보기

- 그동안의 연수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낱말로 3가지를 써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연수 후 꼭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프로그램 워크시트

계획 세우기

- 지역(학교) 단위 연수 계획 세우기

▶ 지역(학교)단위 연수 계획 수립하기

- 지역(학교)단위 연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봅시다.

- 연수 개요

1. 제목
2. 목적
3. 대상
4. 시기
5. 시간
6. 인원
7. 강사진 구성 방법
8.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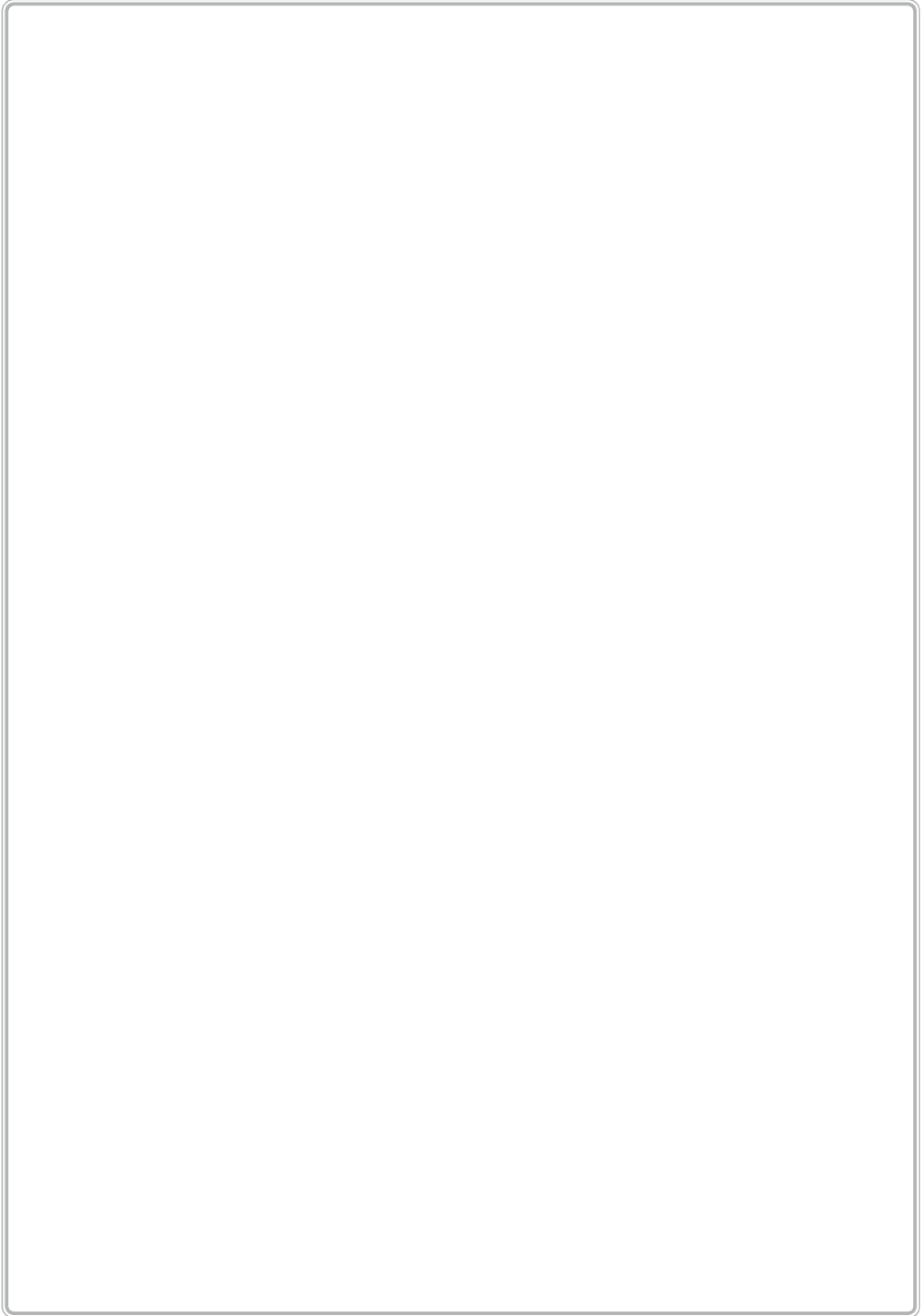
• 연수 교육과정 구성하기(15차시 예시)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학교)의 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봅시다.

차시	영역별 주제			
	자치공동체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공통 (1)	연수 오리엔테이션(연수 전반의 이해 및 연수자의 역할)/ 경기 혁신교육의 이해			
공통 (1)	우리가 꿈꾸는 학교(총론)			
3	학교 비전 세우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직문화와 교사 전문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3	권위주의와 개인주의 관행 개선하기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의미 찾기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3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만들기	존중과 배려의 교실 문화 만들기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역동성 있는 학교 만들기	배움중심수업 (교사 수업 성찰)
3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과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학생자치와 민주시민 교육	우리 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설계하기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공통 (1)	학교에서의 연수 프로그램 적용 방안(토의 및 실습)			
대상 (지역)	교무부장	생활인권부장	혁신부장	연구부장
	1지구 교감	2지구 교감	3지구 교감	4지구 교감
학교	부장 워크숍을 통해 연수 부장은 학년 워크숍을 통해 학년 교사들과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과 연동/방학 중 학년 워크숍 등 시기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 ※모든 부장 교사, 모든 학년의 교사가 한 영역을 맡아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음			

프로그램 워크시트

* 프로그램 내용의 개요 짜기(마인드맵 또는 비주얼씽킹 활용)



배움 · 나눔 ·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 공감!

프로그램 워크시트

기획 정순권(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서길원(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이규성(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유향우(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개발위원	김범진(백성초 교감)	간은균(운산초 교사)
	강대일(안양부안초 교사)	강문영(구운중 교사)
	권현정(보평초 교사)	김명희(숲속초 교사)
	김미영(응곡중 교사)	박재은(갈곶초 교사)
	배성호(구름산초 교사)	양동준(부명초 교사)
	이은진(이매초 교사)	황지현(화성반월초 교사)

검토위원	류관숙(궁내초 교장)	서동연(예봉초 교장)
	장성욱(충현중 교장)	한정숙(왕남초 교장)
	김수진(장곡초 교감)	정미경(덕동초 교감)
	이은록(청북고 교감)	이은욱(용호고 교감)
	강지양(용호고 교사)	임명희(운천중 교사)
	장선영(계남초 교사)	정영옥(희성초 교사)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6년 6월 발행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인쇄처 / 디자인 펌킨 (031-893-8315~7)